

24시간 공사강행 저지 행동을 위한 안내서 Ver. 2



Photo by 조성봉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행회의

24시간 공사강행 저지 행동을 위한 안내서 Ver. 2

함께 막아요! 24시간 공사강행
함께 살려요! 1박 2일 강정지키기
함께 없애요! 2013년 예산 2,009억원

지난 3월 구럼비 폭약반입 및 발파 저지 행동을 위해 첫 안내서를 발간하고 두 번째 버전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몸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강정에서는 현재 공정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24시간 공사, 이에 따른 야간 경찰 동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강정의 지킴이들 역시도 24시간 동안 공사장 정문에서 노숙을 하며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없도록 자신들의 몸을 이용해 최대한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 수십 번째의 고착(공사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지킴이들을 밀거나 들어서 고립시킴. 경찰의 용어로 '안전하게 모신다')이 있었지만 오투기같은 지킴이들의 정문버티기는 무한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감기간 동안 제주 해군기지에 불법적인 승인절차가 있었음이 또 다시 밝혀졌고, 설계오류가 심각하다는 증거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바로 내년도 예산 때문입니다. 해군은 9월 말 현재까지 주어진 예산 1075억 원 중 500억 원 가량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는 780억을 쓰려던 것인데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 280억 원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강정을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던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막아낸 소중한 우리 혈세입니다. 이제 2012년도 채 2달이 남지 않았고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해군은 24시간 공사강행이라는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공정물 30%까지만 끌어올리면 이번 '국책사업'을 무리 없이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도 한 몫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이 2013년 제주해군기지를 위해 신청한 예산은 2009억 원에 이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연대의 마음과 손길입니다. 지금 강정의 지킴이들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철야 행동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강정 국제팀의 최성희님은 '강정의 별을 보고 구운 꿀을 먹으며 1시간의 고착에 동참만 해줘도 해군 예산 1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으면 현재 수적으로 적은 지킴이는 덜 안전함을 써도 되고 그만큼 부상자 수도 적어

진다'고 호소합니다.

정문봉쇄와 고착의 무한반복은 이제 강정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강정의 투쟁은 어느 누구의 투쟁도 아닌 우리 모두의 투쟁입니다. 저녁에도 주말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투쟁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에 최소 1박 2일의 시간을 내어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의 24시간 투쟁 현장을 찾아주세요. 따뜻한 옷(더럽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옷)과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상상력만 필요합니다. 강정에서 뵙겠습니다.

2012. 11. 5. (월)

무엇을? 어떻게?

1. 먼저 아래 두 인터넷 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너무 많은 정보들로 좀 어지럽지만 24시간 논스톱 공사 시작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대강의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카페 구럼비아 사랑해 <http://cafe.daum.net/peacekj>

페이스북 페이지 강정사람들 <https://www.facebook.com/groups/GJpeoples/>

2. 공사장 정문에서 밤을 보내실 분들은 침낭과 매트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정마을에 도착하시면 사거리에 있는 평화센터, 공사장 정문의 할망물다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두 곳에는 늘 지킴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계시니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강정의 24시간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곳, 공사장 정문과 기지사업단 입구 두 곳에서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24시간 논스톱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이 지난 새벽에도 수많은 공사차량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입구를 막으면 레미콘을 비롯한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없어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정마을의 지킴이들이 이곳을 봉쇄하기 위해 밤낮없이 정문 앞에 앉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4시간 이 두 곳을 막는 것과 더불어 아침 7시 100배, 아침 11시 카톨릭 미사, 오후 3시 기독교 미사, 8시 촛불 집회 역시 여전히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정문, 해군기지사업단 입구 봉쇄하기

4. 공사장 정문과 기지사업단 입구를 봉쇄함으로써 공사차량의 이동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켜 공정을 3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직접행동의 핵심입니다. 혼자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 앞에 앉아있으면 레미콘을 비롯한 공사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되고, 잠시 후에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와서 공중부양을 시키고 고착을 시킬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이 한명이라도 더 있으면 공사차량 이동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는 데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공사장과 기지사업단 정문으로 와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선뜻 함께 스크럼을 짜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들은 그냥 지킴이들 주변에

계해주시면서 인권침해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5. 이 행동의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오래 버티는 것이라면 공사장과 기지사업단 앞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우리들을 쉽게 끌어낼 수 없도록 잘 버티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맨 몸으로 버티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서로의 몸을 연결하는 것이 한명 한명 끌어내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공사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스크럼을 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 몇 가지 예시를 활용해서 상황과 인원구성에 적합한 다른 방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역할게임을 통해 직접 스크럼을 짜보고, 또 끌어내보기도 하면서 어떤 방법이 오래도록 잘 버틸 수 있는지 연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한 줄로 늘어선 앉아 서로의 팔짱을 끼고 본인의 손을 모아서 각지를 낀다. 대열의 양 끝에는 덩치가 큰 사람을 배치한다.

- 원으로 둘러앉아 무릎 아래쪽으로 팔을 엑스(X)자로 뻗은 뒤 양 옆 사람의 손목을 서로 꼭 쥔다. 이런 자세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며 표정을 확인할 수 있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각자의 뒤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맞은편의 사람들이 서로 알려주도록 한다.

- 앞에 앉은 사람의 뒤에서 자신의 다리로 앞 사람의 허리를 감싼 뒤 앞으로 몸을 기댄다. 양팔로 앞 사람의 몸통을 감싸고 고개를 숙인다. 신체적 접촉이 많은 만큼 다른 스크럼에 비해 오래 버틸 수 있지만 그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한다.

-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 끈, 천, 고리, 파이프, 시멘트 등 해체에 시간이 필요한 물건을 활용해 몸을 연결하거나 고정시켜 버티는 시간을 늘린다.

유의할 점

6. 버티는 과정에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하거나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낮은 사람과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경찰에 의해 스크럼이 풀리는 과정에서 계속 버티다가 옆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해 몸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건디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를 미리 약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7. 경찰들은 인원수도 많고 명령에 따라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맨몸으로 버티다보면 경찰들한테 밀리거나 고착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만 고립되었을 경우, 경찰들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 경찰과 지킴이 모두 흥분된 상태일 때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때문에 다른 지킴이들과 미리 인사하고 안면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욕을 해서 경찰을 자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자제를 시킵니다. 공사장 앞에 앉아서 버티는 동안 노래를 부르는 것도 폭력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만약 폭력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이 밖에 각자의 그룹별로 다양하고 창의적 행동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앞 봉쇄행동을 하면서 다같이 기운낼 수 있는 노래나 음식을 준비할 수 있고, 공사차량이 이동하는 경로 중 어딘가에서 방해하는 행동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심이 되는 정문 앞 직접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여 그동안 꾸준히 현장에서 활동해온 상황을 잘 아는 강정마을의 지킴이들과 미리 조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관심사, 그룹의 특성 등에 따라 해군기지공사 저지와 지연을 위한 다양한 투쟁의 방법들을 고민해 봅시다.

직접행동시 겪게 될 법적 문제들

공사장 앞에서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연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욕을 심하게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연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상황은 늘 유동적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미리 알아두셔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만약에 연행이 되면, 범도민대책위나 전국대책회의에서 체포나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문제, 조사받을 때의 대처 등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법률자문 요청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행이 되면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체포근거와 시간 등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유치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최대치인 48시간을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문날인은 거부하거나 서명으로 대체가능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포에 주로 적용되는 법 조항

* 집시법 위반

- 주간의 미신고집회의 경우 단순참가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연행하려는 경찰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렇게 현행범체포가 어렵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교통방해나 해산명령불응죄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에 집회하는 경우 야간미신고집회가 될 수 있는데, 주간의 미신고집회와 달리 일반참가자들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특히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주거불안정 등 다른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이 역시 항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손괴죄 : 공사장 펜스나 철조망을 훼손할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손괴하게 되면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공무집행방해 : 민간사업자가 아닌 경찰 등 공무원들의 업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행이라는 것은 '때리려고 시늉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업무방해 : 삼성·대림 등 민간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유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 경찰들에게 욕하는 것은 요즘 모욕죄로 많이 적용되어 체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의할 곳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02 522 7284